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심윤경 소설가

딸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이던 시절, 학부모 공개수업 일에 찾아간 나는 잊을 수 없는 하루를 보냈다. 도심 공동화의 충격을 제일 먼저 맞았던 오래된 마을, 한 학년에 4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학교였다.

기억나는 건 아이들이 일상불란하게 움직이던 동작들이다. 선생님이 "무지개~" 라고 나직하게 말하면 아이들은 즉시 책상을 반원형으로 새로 늘어놓고 앉았다. "여섯 명~" 하면 다시 착착 움직여 여섯 명씩 그룹을 지어 마주 앉고, "전체~" 하면 스무 명이 칠판을 바라보는 평범한 대형으로 돌아갔다. 선생님의 손끝이나 몸짓, 입모양까지 집중해서 바라보다가 아주 작은 힌트만으로도 기다렸다는 듯 번개같이 지시를 수행하는 아이들은 첨단 동작인식 AI를 탑재한 고성능 기기 같아 보였다. 선생님의 손짓만으로 오솔같이 움직이던 아이들 속에는 발달지체 아동도 있었는데, 그 아이의 얼굴에도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환한 미소와 열정이 일렁었다. 일상불란하게 움직이는 조그만 아이들을 황홀하게 지켜보며 뿌듯한 하루를 보냈다.

거리의 선생님들

그것은 특하던 폐교 위기가 닥쳐오는 작고 오래된 학교에서, 평범한 수업 참관일에 보았던 풍경이었다. 그 모습 같은 풍경을 만들어낸 사람은 퇴직을 몇년 앞둔, 덩치가 자그마한 담임선생님이었다. 그분은 교감이나 교장처럼 높은 자리에 오르지 않고 평교사로 정년퇴임하셨는데, 그분을 담임선생님으로 오래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동네 아이들과 부모들이 누렸던 작은 축복이었다.

물론, 내가 학생으로 지냈을 때나 학부모가 되어 다시 학교에 돌아갔을 때나, 학교에서 늘 좋은 일만 겪었던 것은 절대로 아니었다. 12년의 학창시절을 요약해 보자면 축복 같은 선생님을 한두 분, 그냥 평범한 선생님을 열 명쯤 만났고, 악몽 같은 선생님을 한두 번쯤 겪었다. 결론적으로 그냥 평범한 정규 분포 곡선이었는데, 일상의 대화에서는 악몽 같은 선생님 이야기가 화제에 훨씬 더 많이 올랐다. 행복과 감사는 고통과 분노에 비하면 훨씬 잔잔한 감정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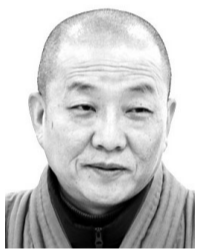
작가가 되고 나서 전국의 학교를 찾아다니며 강연을 하게 되었다. 내가 등단할 때만 해도 학교에서 작가를 초청해 강연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학교는 판에 박은 수업을 벗어나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려는 방향으로 꾸준히 진화해왔고 그 덕분에 나는 방방곡곡의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작가로서의 내 삶에 가장 축복 같은 시간이었다.

내가 찾아가는 학교들은 유명하거나 특별한 학교들이 아니다. 아파트 단지에, 오래된 마을에, 혹은 전교생이 스무 명도 채 안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평범한 학교들이다. 그곳에는 평범한 아이들과 평범한 선생님들이 있다. 나를 한번 초대하려면 선생님들은 여러 장의 기안서와 행정서류를 작성하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고, 토론이나 연극 같은 연계 활동을 시키고, 감상문과 보고서를 받아야 한다.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을 시켜줄 생각 하나로 선생님들은 돈도 되지 않고 일만 많은 행사를 자청해서 벌인다. 모든 선생님들이 다 축복 같은 존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장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열정으로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다.

무더위가 기승이던 8월, 오래 전 내가 폐교 반대 시위를 하러 갔던 교육청 앞에는 난데없는 근조 화환이 무더기로 켜졌다. 거리에는 검은 옷을 입은 선생님들이 퇴야별 속에 주말마다 시위를 했다. 시위대에 익숙한 광화문 주민이지만 낯선 풍경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내가 겪은 선생님들의 얼굴을 떠올려보았다. 검은 옷의 시위대 속에는 축복 같은, 평범한, 악몽 같은 선생님들이 정규 분포의 비율로 섞여 있었을 것이다. 집단 속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여 있는 것은 자연의 순리다. 선생님은 생활인으로서 누구나 일찍 퇴근하고 싶었고 굶은 일은 피하고 싶었고 하는 일에 비해서 급여가 박하다는 한탄을 했을 것이다. 우리와 똑같다.

학교는 지금보다 더 좋은 직장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 곁에 좋은 선생님들이 남는다.

종교칼럼



중현 광주 중심사 주지

새벽부터 매미 소리가 유난스럽더니, 해가 뜨자 온 세상천지가 매미 소리로 가득하다. 태풍이 지나가자 생긴 변화이다. 태풍이 오기 전, 찌는 듯한 폭염의 한가운데에서도 매미소리의 기억은 없었다. 물론 폭염이 찾아오기 전,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들리었던 길고 긴 장마동안 매미소리는 당연히 없었다. 저들은 유충으로서 살았던 삶 전부를 담아 전심전력으로 울고 있다. 울음 소리에 자신들의 삶 전부를 담아내고 있다. 오늘 아침 티없이 맑고 따가운 햇살 아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매미들은 행복에 겨워하고 있다. 창문 이란 창문은 다 열어놓고 매미들의 합창소리를 듣고 있는 나 역시 저들처럼 행복하다.

우연의 일치였을까. 긴 장마가 끝나던 날이었다. 나는 장동 로타리에서 신호대기에 걸려 있던 참이었다. 그 때 거짓말처럼 갑자기 하늘이 개면서 파란 하늘이 눈 앞에 펼쳐졌다. 마침 라디오에서 음악방송의 디제이 멘트가 흘러나왔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행복의 세가지 조건을 이렇게 말했다. 첫째, 하는 일이 있는가. 둘째,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셋째, 희망하는 바가 있는가. 세상의

지금 행복하십니까?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행복하신가요?" 갑자기 등장한 새파란 하늘을 바라보던 나의 감정은 말하자면, 경의 혹은 감탄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행복에 관한 멘트를 듣자마자 그 감정은 곧바로 행복으로 급선했다. 그러다가 곧이어 의문이 들었다. '정말 칸트가 저런 말을 했다. 칸트답지 않은데'. 금세 신호는 바뀌었고 잠시나마 행복했던 나도, 웬지 어설픈 저세상 강사같은 칸트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다시 세상은 분주하게 돌아갔다.

행복에 대해서라면 칸트보다, 평생을 행복에 대해 연구했다는 긍정심리학의 창시자 셀리그만의 견해에 더 믿음이 간다. 그 역시 행복에 대해 세가지 말을 했다. 첫째, 즐거운 삶. 두번째, 자신의 일에 몰입하는 적극적인 삶. 세번째, 의미 있는 삶.

그런데 왜 나는 행복에 대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몇 년전 죽은 도반이 생각나는 것일까? 아마도 지금 그 스님이 선물한 티셔츠를 입고 있어서 그런 모양이다. 혼자 멍하니 생각한다. '그 스님은 지금 행복할까'. 그 스님은 누구보다 수행에 열심이었다. 그러나 너무나 열심이었던 나머지, 그만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말았다. 증세가 심해져 뒤로는 정신병원 입원과 퇴원을 몇차례 반복하다가 결국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이 티셔츠는 그 스님이 자신을 돌봐주던 도반들에게 고맙다며 선물한 것이다.

혹자는 말했다.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행복감을 느끼도록 설계된 것이다"라고. 행복도 살아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죽은 자에게

서 행복을 찾는 것은 마치 물 속의 물고기에게 마실 물을 주려는 것과 같다. 애당초 삶에 이어나 목적 같은 것은 없다. 그 누구도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살면서 생기는 목표는 기왕 사는 인생 더 잘 살아보려는 욕망의 발현일 뿐이다.

행복은 삶의 목표가 아니라 일종의 생존수단이다. 그렇다고 단순한 쾌락이나 충동같은 부류는 더더욱 아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행복이란 매우 복합적인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행복은 마음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상태에 있는 마음이다. 그러니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 역시 마음 속 어디쯤에 있을 것이다.

마음이란 원래 흔들리고, 동요하고, 지기 어렵고, 보호하기 어렵고, 다스리기 어려운 것이다. 화살을 만들려고 할 때 나무가 삐뚤삐뚤 굽어 있으면 쓸 수 없다.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당장 눈 앞의 즐거움만 쫓는 욕망에서 벗어나려면, 가장 먼저 마음이 거칠게 반항하며 브레이크를 건다. 마치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가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마음은 '나 하던 대로 할래' 하면서 거칠게 몸부림친다. 그러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곧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요란한 매미소리에 다시 생각은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런데 매미들은 정말 행복할까. 매우 복잡한 감정이라는 행복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매미 정도의 신경 구조로 행복을 경험하기는 어렵었을 듯하다. 그래도 8월의 아침이 어리도 찬란하게 빛나니 매미들도 필시 행복할 것이다. 그것도 아주 많이.

기고



김동수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위원장

7월 내내 긴 장마와 폭우로 큰 피해와 인명 손실이 있었다. 이어진 폭염으로 온열 환자가 급증했고 사망자도 전년도에 비해 많아지고 있다. 폭염에 이어 이제 태풍이 오고 갈 것이다.

이렇듯 때마다 여름철이면 겪는 일이지만 자연재해는 갈수록 더욱 빈발해지고 있다. 여기에 준비와 대처에 소홀하여 인재로 이어지고 있어 갈수록 피해는 증가하는 실정이다. 그나마 오송 지하차도에서 화물차 기사 유병조 씨가 혼신의 힘을 다하여 시민 세 명을 구조한 이야기가 우리를 위로해주는가 싶다. 더구나 구조된 20대 여성이 "저는 힘이 없으니까 손 놓으시라고 했는데 끝까지 잡아서 높은 곳까지 (올려줬다). 자신도 힘들었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인터뷰 보도를 접한 사람들에게는 더 감동적

빈발하는 자연재해 속 더 중요한 헌혈 나눔

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코로나를 위시해서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폭우, 화요일 산불 등 최근에 지구촌에 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는 이유가 무엇일까. 기후변화라고 하면 들리지 않을 것이다. 지구 온난화를 넘어 지구 열대화라는 용어가 사용될 정도로 지구는 뜨겁다. 뜨거운 지구 때문에 폭염은 물론 유례없는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이 일어날 것이다. 그로 인해 우리의 일상은 멈춰지고 피해는 막대하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헌혈도 예외는 아니다. 여름철 방학과 휴가로 가족이나 헌혈버스가 갈 길이 줄고 참여도 적다. 그런데 폭우와 폭염, 태풍까지 겹치면 설상가상 헌혈자는 더 급감한다. 폭우나 태풍의 경우에는 헌혈의 집에 가기도 힘들고 예약 단체가 취소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면 대체해서 72시간 이내에 가급적 공급해야 하는 혈소판제제는 비상이 걸린다. 이 시기에 수혈을 기다리는 환자에게는 위험천만한 최악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난 3년간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를 극복하는 원동력은 우리 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아니었다 싶다. 또한

지진, 산불, 극한 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 복구도 마찬가지다. 기부, 봉사, 헌혈 등 나눔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연대와 협력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나눔으로써 이룰 수 있다.

필자는 최근 발간한 '나눔으로 행복한 시간'에서 나눔은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이 되어야 한다"며 기부, 봉사, 헌혈 외에도 기후변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이 걷고, 음식과 소비를 절제하는 등 생활 속 습관을 바꾸기를 권장했다. 지속적인 나눔이아말로 기후 위기를 예방하고 우리 사회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빼-- 빼- 비상 경보음에 화들짝 놀란 적이 있을 것이다. 전북 장수군에 발생한 지진 때문이었다. 안전 문자와 달리 경보음이 들리자 또 큰 사고가 일어날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가 들었던 것이다.

코로나 시기에 한두 번의 헌혈 재난 문자를 받아보았을 것이다. 만약 폭염이 계속되고 태풍으로 헌혈자가 급감한다면 경보음과 함께 재난 문자가 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앞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동체 의식과 생명 나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폭우, 폭염, 태풍 속에도 헌혈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社說

코로나 4급 감염병 전환...자율방역 집중해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오는 31일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확진 검사와 입원 치료에 대한 비용 지원이 대폭 축소되고,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도 없어지는 등 본격적인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시기로 들어선다.

정부는 잇그제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안)'을 확정했다. 코로나19는 현재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 간염, 한센병 등과 함께 2급으로 분류됐지만 앞으로는 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과 같은 4급으로 낮아진다.

코로나19가 4급으로 낮아지고 2단계 조치가 시행되면 확진자 수 집계도 중단되고 독감처럼 양성자 중심의 표본감사로 바뀌게 된다. 또한 진단검사와 치료, 생활 지원 등 지원책은 대폭 축소되거나 종료된다. 특히 일부 혹은 전액 지원했던 유전

자증폭(PCR)검사와 신속항원검사(RAT)는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인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를 제외하고는 전액을 피검자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가 4급으로 낮추진다고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23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6일~22일 광주 9370명, 전남 9852명이 확진되는 등 일평균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BA.2.86이라는 새로운 변이의 등장과 치료 부담으로 검사를 기피할 경우 언제든 다시 유행할 가능성도 있다.

코로나 방역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줄어들면서 자율 방역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지난해 오미크론 유행 속 이뤄진 방역 완화 조치가 대규모 유행을 가져왔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들은 상황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자율적인 방역관리에 힘써야 할 것이다.

전남 데이터센터 유치, 지역 성장동력으로

광양과 해남 등 전남지역에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구축된다. 광양시는 지난 21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KT,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과 투자협약을 맺고 황금산단단지 7500억 원 규모의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짓기로 했다. KT와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설계부터 시작해 운영까지 맡는데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는 빅데이터 시대의 핵심 기반시설로 클라우드(정보 저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 확대로 대용량 데이터를 관리하는데 필수적이다.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지만 IT와 소프트웨어 등 연관 산업 유치라는 파급 효과가 훨씬 크다.

어제는 해남군 기업도시 솔라시도에서 전남도, 해남군, 한국전력과 7개 민간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일대에 데이터센터 파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삼성물산, LG CNS, NH투자증권 등 내로라하는 기업

들이 데이터센터 집적화 단지를 조성해 40메가와트 규모의 데이터센터 25동을 2037년까지 단계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사업 규모는 10조 원대로 총 17기 가와 트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게 된다.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데이터센터는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전남이 최적지이다. 기업들은 'RE100' 정책을 따라 장기적으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해야 하는데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남아도는 전남에 데이터센터를 지을 경우 자연스럽게 전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정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를 비수도권 지역으로 분산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 전남도를 비롯한 지자체체들은 이런 기회를 이용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데이터센터 유치에 나서야 한다. 데이터센터가 전남의 신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전력 기반을 구축하고 전담반을 구성해 정책적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無等鼓** 🥁

언제부터인가 떡볶이와 닭강정 등 한국 의 분식이나 간식거리가 아시아 각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중국 대도시에는 수많은 한국 분식점들이 진출해 있고, 몽골 울란바토르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길거리 음식이 떡볶이일 정도로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아시아인들이 늘고 있다.

이 같은 K푸드의 확장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새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중국 음식이 있으니, 바로 마라탕과 탕후루이다. 매운 맛을 좋아하는 한국인의 취향을 저격한 마라탕은 전국에 전문 식당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여기

**탕후루**

에 1~2년 새 아이들과 젊은이들을 매료시킨 탕후루는 자고나면 점포가 생겨날 정도로 인기가 치솟고 있다. 탕후루(糖葫蘆)는 중국의 과일 사탕이다. 나무 꼬챙이에 끼운 산사나 딸기 등의 과일에 설탕 시럽을 발라 굳혀 먹는 중국인들의 대표 간식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이나 홍콩의 영화를 통해 친숙해졌으며, 중국 여행의 1번지인 베이징 방문시 길거리에서 접한 경우가 많았다. 탕후루 기원에 대한 설은 여럿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1000년 전 송나라 황실에

서 먹었던 음식으로 명청 시대에 인가를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숭아 황제인 광종에게는 애첩인 황귀비가 있었는데, 병에 걸려 좀처럼 낫지 않았다. 한의사가 산사나무 열매와 설탕을 함께 달여 식전에 5~10개를 먹게 했는데 완쾌했다고 한다. 이후 민간에서 백성들이 산사를 나무에 꽂아 팔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탕후루의 유래로 보는 설이 유력하다.

한국에 상륙한 탕후루는 포도나 딸기, 방울토마토, 키위, 귤 등 다양한 과일을 이용하고 있다. 중국인들도 예상치 못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탕후루지만, 인기 탓에 곳곳에서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끈적이는 설탕 시럽 때문에 광주 금남로 상가에는 '탕후루 입장 불가'라는 팻말을 붙인 점포가 여럿 있다. 특히 과일을 꺾은 꼬챙이에 환경미화원이 다치는 가하면 길거리에 파우 버려진 탕후루 종이컵 탓에 파리가 마이는 등 위생에도 문제가 있다고 한다. 탕후루를 먹었다면 꼬챙이를 뿌리뜨려 시럽이 묻은 종이컵과 함께 휴지통에 버리는 에티켓 정도는 지켜야 하지 않을까.

/채희중 정치담당 편집국장 chae@